

#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행인 근로자위원 대표 이현우 / 발행일 2026년 7월 31일(금) / 배포확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 제 01호

## 2026년 긴급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 장소 : 평택사업본부 본관 2층
- 일시 : 2026년 7월 30일(화) 14시 ~ 14시20분
- 참석 : 이현우 근로자위원 대표 외 10명, 조성현 대표이사 외 10명

| 안건                       | 지부 요구안                                                 | 회사안                               | 빠진 것 / 후퇴한 것                              |
|--------------------------|--------------------------------------------------------|-----------------------------------|-------------------------------------------|
| 1. 인터락·전원차단 전 수조사        | 위험 발견 설비는 개선 계획서 제출시까지 작업중지. 지부·지회별 조합 점검인원 지정         | 노사합동 특별점검 실시,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노사간 협의 | '작업중지' 삭제.<br>점검인원 언급 없음                  |
| 2. 적정인원 산정·정규직 채용계획, 재고용 | 전사 전수조사 후 정규직 신규채용, 퇴직인원만큼 총원. 적정인력 유지 재고용, 조합 조사인원 지정 | 평택 보전인력 포함 채용은 '2026년 단체교섭에서 논의'  | 채용계획 자체가 통째로 단체교섭으로 이관, 사실상 무기한 연기        |
| 3. 비상연락·노사합동 조사 표준화      | 사고 즉시 통보, 초기대응부터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까지 노사합동 진행, 절차 표준화         | 비상대응체계 재정비, 노사합동 '사실조사' 실시        | 재발방지대책 수립까지 노사합동인지 불명확, '표준화' 규정 제정 언급 없음 |
| 4. 트라우마 치료·심리 지원         | 제도 마련, 목격자·필요직원 심리케어, 8월 내 전 직원 특별안전교육                 | 제도 마련, 심리케어 프로그램, 특별안전교육 실시       | '8월 내' 시한 명시 빠짐. 언제할지모름                   |
| 5. 외주작업 안전관리수칙           | 외부업체 투입 전 조합과 사전 협의,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서·작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 조합 제공  | '외주 작업 안전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절차를 준수한다'    | 조합과의 사전 협의, 자료 제공 의무가 통째로 삭제              |
| 6. 중간관리자 생산라인 투입 금지      | 직장·보직계장의 직·간접 생산목적 라인 투입 전면 금지                         | '생산과장의 생산 라인 지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금지'가 '노력'으로 후퇴, 대상 직급도 슬쩍 바뀜, 강제력 없음     |

# 노동조합을 기만했다

## 실무 접근안과 전혀 다른 안이 나왔다!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긴급 회의가 열렸다. 사망사고의 진상이 규명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실무에서 의견접근 후 산보위 회의에 임했다. 그러나 회사가 내놓은 안에는 실무에서 의견 접근된 안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다.

‘위험설비 개선까지 작업중지’는 통째로 사라졌다. 채용계획은 논의조차 없이 단체교섭으로 미루자 한다. 중간관리자의 생산라인 투입 금지는 ‘최소화 노력’이라는 있으나 마나 한 문구로 둔갑했다. 진정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실무에서 접근된 안 조차 바꿔버리는 이 행태는 선을 넘어섰다!

## 사측의 배짱, 이유가 있었다

노동부에서 작업중지 명령이 떨어지자 외부업체에서 몰래 가공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생산을 해오다 적발되었다. 이에 지부와 지회가 함께 외부 생산품을 끌어내고 작업중지 명령을 이행토록했다. 한쪽에서 몰래 생산을 해오고 있으니, 사측의 배짱 태도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있는 이 사안에 이와같은 사측의 대처는 망신스럽기 그지없다. 만도지부와 평택지회는 31일(금) 11시, 노동부 평택지청장 면담을 요청하여 방문하기로 했다.

#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 상황 매우 유감스럽다

대표이사의 참석으로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내용물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한 산보위 회의였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이 상황을 노동조합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또다시 안전을 비용으로 치부하고,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이 처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 이제 정몽원 회장이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다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안전 총 책임자 CSO 김현욱 대표가 산보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엉망진창 산보위는 사태를 수습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내었다. 이제 실질적인 경영권자인 정몽원 회장이 나서지 않으면 수습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틀뒤면 여름휴가가 시작되지만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각 지회 간부들은 휴가를 반납했다. 오히려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니 더욱 가열차게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정몽원 회장이 전면에서 나서라!!